



닭의 악습원인과

그 대책

김 지 태

(한협가금육종농장 영업부장)

우리나라 양계업도 많은 변천을 가져와 종전의 부업양계나 소규모양계업을 지나 기업양계로 발전하여 왔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여 온 養鷄產業으로 인하여 닭의 사양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 한정된 시설과 면적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다 보니 닭의 惡習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같은 닭의 악습에 관하여 原因규명과 대策을 강구하면서 보다 나은 합리적인 양계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一. 惡習의 類型

1. 食羽性 (Cannibalism)

닭의 악습중에 가장피해가 큰 습성이다. 育雛에 항문주위에 있는 부분의 털을 쪼여 피를내고 腸까지 꺼내어 닭을 폐사 시키게 하는 나쁜버릇이다.

2. 啄肛門性 (탁항문성)

脫肛症의 원인이 되기도하는 이 버릇은 부화후 20일령이후부터 발생하여 老鷄가 되어 폐기되도록까지 발생되며 全群에까지 파급되는 경향도 있다

3. 啄卵性 (탁란성)

產卵鷄나種鷄에서 알을 쪼아먹는 습성이 있

다. 이로 인하여 파란이 많이 발생하여 경영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하므로서 탁란성도 중요시 되고있다.

4. 골라먹는 습성

飼料를 헤쳐 알꼭모이만 골라 먹고 飼料의 손실을 유발시키는 버릇이다.

5. 싸우는 習性과 신경파민성

경쟁심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신경질적으로 예민하여 주위환경에 잘 적응치 못하는 习性이다. 닭품종이 경종인 체구가 작은 계군에서 많이 發生된다.

二. 惡習의 原因

1. 환경적요인

① 密飼하고 있을때

주로 닭의 惡習은 적은 면적에서 많은 계군을 사육하고 있을때 대부분 發生 되고있다

② 직사광선이 비치어 계사内部가 너무 밝을때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③ 細水器 및 細餌器가 부족할때

④ 飼養管理의 조잡으로 불안할때

⑤ 섬등을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을때

⑥ 계사내 바닥이 습하고 공기에 습도가 많

을 때

⑦ 강풍과 틈바람이 직접 당을 때

2. 營養的인 요인

① 영양소의 결핍 또는 과다의 불균형인 경우

② 지나친 농후사료 급여로 인해 섬유질이不足할 경우

③ 사료중에 변질, 부패 중독성 사료를 먹었을 때

④ 첨가제를 과량과식에서 오는 중독증으로 인한 계군의 우열이 심할 경우

⑤ 영양의 과다공급 또는 운동부족으로 지방층이 형성되어 난관의 신축성이 저해되어 탈홍이 되었을 때

3. 其他要시

① 習慣的인 雞病

初生雛부터 습관적인 개체가 있다.

: 雉鸡의 대책

닭의 습성을 억제시키는 것은 습성을 外部로 나디내는 부리와 말톱을 제거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개체로 부터 雉性을 받는다 해도 또다른 계군에게 나쁜버릇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1. Debeaking(입부리 자르기)

위 입부리를 $\frac{1}{3}$ 정도 자르고 지져준다 최근에는 Debeaker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부리자르기는 물론 평사 사육시에는 말톱(더느리말톱) 까지 Debeaker로 자르고 시져 주도록한다

1) Debeaking 의 장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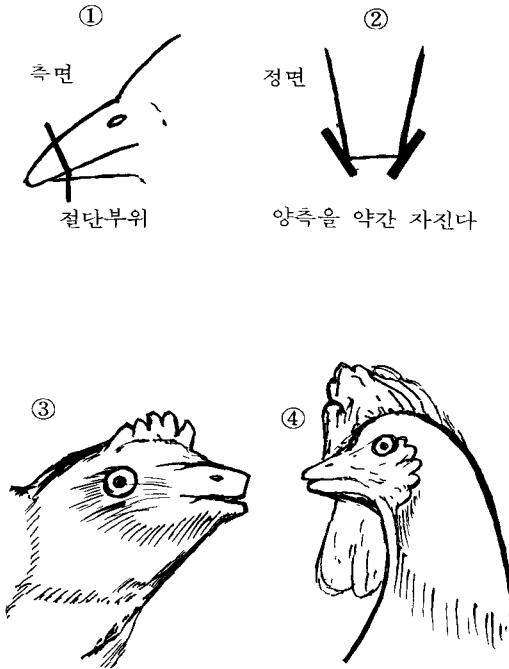
i) 食肉性(Cannibalism)이 없어지므로 그

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ii) 成雛에서 큰 피해를 보는 탈홍증을 예방할 수 있다

iii) 사료의 분산을 막고 골라먹는 버릇을 없앨 수 있으므로 사료의 損失이 적다.

iv) 서로 싸우지 않으므로 体力消耗가 적



[그림 1] 부리 자르기

① 측면에서 본 절단부위

② 정면에서 본 절단부위

③ 1~4 일령雏의 부리자르기

④ 성계시의 이상적인 부리모양

고 신경파민이 되지 않는다.

v) 알을 깨어 먹는 성질이 없어진다

2) 부리를 자를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i) 初產한 닭의 부리를 부득이 자르고자 할 때에는 윗부리는 $\frac{1}{3}$ 아래부리는 약간 잘라낸다

ii) 모이통바닥에 부딪혀서 出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5 일간은 물과 모이를 충분히 주도록 한다

iii) 抗生物質을 3 일간 투여하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다

iv) 더운 날씨에는 출혈과 스트레스가 많으므로 아침에 실시한다

v) 부리자르기 전 4 ~ 5 일간 비타민k를

투여하면 출혈방지에 도움이 된다.

- v) 부리를 자를때 아래윗부리의 차이가 심하면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여 큰 피해를 가져오는 수가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하고 부리를 자른 후에는 모이통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충분한 사료를 급여한다
- 2. 탁우성에 피해를 입은 닭은 곧 격리 시키고 콜탄이나 에치올을 빌라준다
- 3. 적시광선을 차단하고 커튼을 쳐준다. 이 때 특히 계사내부의 환기에 주의 하도록 하며 내부를 어둡게 하여 준다 이렇게 하므로서 계사내부 및 외부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쁜 習性이 發生하지 않는다.
- 4. 부식토, 신선한 흙, 모래를 급여한다
- 5. 良質의 녹사료 급여
- 6. 염분이 不足하지 않도록 한다
- 7. 밀사하지 말것, 기본원칙의 석정 수수에 준하여 사육하도록 한다.
- 8. 실내를 확장하여 밀사되지 않게 분산시킬것.
- 9. 방사시킬것.
- 10. 벗 자르기를 한다

벗자르기는 부화직후 가위 또는 면도칼로 벗을 잘라내는데 부화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잘라주는것이 출혈이 적다. 벗자르기의 장점은 들면 다음과 같다.

- i) 경쟁심이 없어지고 싸움이 적다.
- ii) 사육도중 케이지나 철망에 부딪혀서 상처를 받지 않는다.
- iii) 거울철에 동상에 걸리지 않는다.
- iv) 鷄痘의 침입부분이 적어진다

9. 날개를 자른다.

털이나는 부위인 주익우의 발생부를 부화직후 손톱깎기로 잘라주면 된다. 날개자르기의 장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 i) 행동이 온순해지고 싸움이 적다.
- ii) 날개로 소비되는 양분이 절약된다. 즉



환우시의 영향을 덜 받는다.

- iii) 높이 날지 못하므로 관리가 쉽다.
- iv) 체중이 증가하고 고루 자란다.
- 10. 가급적 산란 케이지에 늦게 올릴것
- 11. 초산시 가급적 접등을 강하게 하지말것.
- 12. 탈항과 식우성이 시작하면 전등을 높이 달고 촉광을 조절한다.
- 13. 산란기에 들어간 뒤에는 單飼케이지 외에는 옮기지 않는다
- 14. 닭을 이동시킬때는 한계사내에서 집단을 형성 하도록하고 가능한 한 체중의 편차가 적은 계군끼리 함께 사육 하도록 한다. 부득이 한 경우이외는 계군의 이동을 금지하는것이 좋다
- 15. 사료급여방법은 가루모이 자유체식 방법이 바람직 하다.

- 16. 한번 暫卻이 붙은 부리를 자른다 해도 버릇을 버리지 못하므로 이러한 닭은 케이지에서 單飼하거나 도태하는것이 좋다

이상과 같이 닭의 악습발생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관리자는 항상 세심한 주의와 관찰로 사전에 악습 발생의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악습이 발생된 닭들은 조기에 발견, 격리 사육하여 악습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와같은 철저한 사육관리는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와, 결국 수익의 극대화 달성을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